

《최고수준의 황홀한 공연,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

공훈국가합창단 하바롭스크에서 초대공연 성황리에 진행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공훈국가합창단이 수도 모스크바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3일 원동편방 하바롭스크변경 소재지인 하바롭스크시에서 성황리에 초대공연을 하였다.

공연장소인 하바롭스크변경음악극장으로 조선의 예술사적인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워프르 마르켄코 하바롭스크변경정부 부수상, 나탈리아 야우찌나 하바롭스크변경정부 문화상, 알라 푸즈네초바 변경정부 교육상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하바롭스크변경정부와 의회, 하바롭스크시행정부,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로씨야연방무력 동부군관구 군인들, 시민들, 재로씨야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입천일 나흐드카주제 우리 나라 총명사와 총명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관중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들을 자기들의 도시에 여러차례나 모시었던 영광의 나날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며 조선의 판록있는 예술단체인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 기쁨에 넘쳐 있었다.

워프르 마르켄코 하바롭스크변경정부 부수상은 조선인민군 군악단이 두차례에 걸쳐 국제군악축전에 참가하여 이들을 낯선 이곳 변경에서 조선의 가장 명성높은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합창단의 하바롭스크방문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우리 나라 예극가와 로씨야극가가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첫 곡목으로 무대에 오른 판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리상향,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나날이 개발발전하는 주체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무대에는 판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남성합창 《조국의 바다처럼 영성하리라》,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철령아래 사과바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로씨야노래 남성합창 《앞으로》, 남성중창과 경음악 《근위부대자랑가》, 로씨야노래 《영사들 사내대장부들이여》, 남성독창과 무반주합창 《전호숙의 나의 노래》, 로씨야노래 《넓은 내지 씨비리》, 판현악과 노래편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남성중창과 남성독창 《생몰터에서》 등 신선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방안, 로씨야인민의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곡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뿔같이 뚫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며 백두산촌대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 조로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지

향과 념원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

하늘명을 울리는것과도 같은 종만한 성향과 특색있는 편곡, 생생한 실학적형상으로 장엄하면서도 경쾌한 정서를 안겨주는 다채로운 조목들이 오를 때마다 관중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판현악 《세계명곡목용》을 감상한 관람자들은 판현악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연주자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출연자들은 《정의의 싸움》, 《오직 승리 하나일뿐》, 《불가의 배노래》 등 로씨야인민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들도 판현악과 노래편곡, 남성합창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로씨야노래 《승리의 날》이 판현악으로 장중하게 연주되자 관람자들은 출연자들과 마음을 맞추어 노래도 함께 불렀으며 거듭 제청을 요구하였다.

로씨야연방무력 동부군관구협찬된 배우들이 공훈국가합창단의 연주에 맞추어 남성중창으로 부른 로씨야노래 《군함의 밤》은 이날의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무대배경에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혁명의 성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정중히 모셔지고 남성중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자 전체 관람자들은 백두의 천출위인을 우리르며 열광적인 박

수갈채를 터쳐 올렸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의 빛과 기상, 로씨야인민의 민족적정서를 기백 있고 참신하며 세련된 형상으로 보여준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안겨주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하바롭스크의 각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워프르 마르켄코 하바롭스크변경정부 부수상은 오늘의 공연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에서 들은 노래들은 이미 귀에 익은 노래들이지만 공훈국가합창단이 연주하니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합창단의 모든 예술적형상이 최상의 경지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오늘 이처럼 황홀한 공연을 보게 된것이 대단히 기쁘다.

이번 공연이 문화 및 예술분야에서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나탈리아 야우찌나 하바롭스크변경정부 문화상은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정말 찬탄을 자아내는 황홀한 공연이라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지휘자들로부터 연주가, 배우들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기량이 최고의 수준이다.

가장 마음에 드는것은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열화 같은 존경과 흠모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함축된 참으로 훌륭한 노래이다.

노래자체가 기백이 있고 형상도 정신이 번쩍 들게 힘이 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조선과 하바롭스크사이의 관계발전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것이며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동할것이다.

올라지미르 자구르노이 극장지배인은 공연 전과정을 보고 받은 충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판관석에서는 조선의 훌륭한 음악가들에게 보내는 박수갈채가 끊길줄 몰랐다.

그들의 형상수준과 기풍, 애국주의는 놀라움을 자아냈다.

참으로 존경받을 만할 예술단체이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

그처럼 수준있고 재능있는 조선의 예술인들의 공연이 우리 극장에서 진행되는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느 노래라고 적지 못할 정도로 로씨야 노래를 비롯하여 모든 노래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형성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은 최고의 최고이며 그들의 예술활동에서 우리가 배울것이 참으로 많다.

이것은 관람자들모두의 공통된 심정이다.

조선의 가장 명성높은 예술단체인 공훈국가합창단에 경의를 표한다.

하바롭스크시 고려인연합회 회장 백규성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극장에서 이처럼 관중들이 가득차기는 처음인것 같다.

로씨야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서 온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저저마다 모였다.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듯 풀렸는가를 오늘의 공연이 잘 증시해주었다.

공연에서 제일 마음에 든것은 애국주의 노래들이었다.

우리 동포들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 준 공훈국가합창단이 정말 고맙다.

오늘과 같은 훌륭한 공연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들만이 아닌 수많은 관중들도 조선의 공훈국가합창단이 지닌 특출한 예술적강화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해에 모스크바와 원동편방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며 성황리에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년대기에 또 하나의 뜻깊은 장을 아로새기는 훌륭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 모스크바의 여러곳 참관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이 크레블리성벽결에 있는 무명전사묘를 보았다.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조로친선의 해에 즈음하여 로씨야를 방문한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이 모스크바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은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지난 초대전정시기 제2차 세계대전의 기본증거를 걸머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피흘려 싸워 과소침략자들을 격멸한 붉은군대 병사들과 인민들의 위훈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모스크바전관, 쿠르스크전관, 베를린합판 등 박물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또한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은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였으며 크레블리성벽결에 있는 무명전사묘를 보았다.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공훈국가합창단 귀국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장풍식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인솔하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박춘남문화상, 김의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궁석용 외무성 부

로씨야에 갔던 민용항공 총국 대표단 귀국

로씨야에 갔던 강기섭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용항공총국 대표단이 4일 귀국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을 방문하였던 친선문화대표단 귀국

로씨야 원동지역을 방문하였던 김영식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문화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국제축구연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바레인팀사이의 1차경기 진행

국제축구연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바레인팀사이의 1차경기가 3일 바레인에서 진행되었다.

국제축구연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바레인팀사이의 1차경기 진행

우리 나라 팀은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필리핀, 에티오피아와 함께 8조에 속해있다.

매 팀이 서로 레왕하면서 진행되는 2단계경기에서 우리 팀은 상대팀의 특성에 맞는

재일본조선학생동맹결성 70돐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방문하고 흥련의 새 세대를 배두산절세위인들에게서 배

다음주에 진행 될 체육경기들

시는데로 훌륭히 키워야 하겠다 는 자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기관에서 바드민

경기관에서 바드민 톤경기가, 5일부터 평성시에서 권투경기가, 9일부터 평북거리에서 자전경기기가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